

# 성 클레멘테 성당 한인공동체

## Korean Catholic Community of San Clemente Mission Parish

주임신부 전흥식 요아킴 | Tel (661) 871-9190 | 1305 Water St., Bakersfield, CA 93305  
Fax (661) 873-7286 | 홈페이지 [www.sanclementemission.org](http://www.sanclementemission.org) | 통권 제 29 권 34 호



주일 미사: 오전 8 시 (한국어, 영어), 오전 9 시 30 분(영어), 오전 11 시(스페인어)  
토요일 미사: 오후 6 시(스페인어)  
평일미사: 월, 화, 목요일에는 오후 6 시. 금요일에는 오전 9 시 30 분  
고백성사: 월, 화, 목요일 평일미사 전 (오후 5:30 ~ 5:50) 또는 시간약속을 요함.  
성체조배: 매월 첫째 목요일 오후 6 시 30 분  
평신도 협의회 임원회의: 매월 둘째 일요일 오후 7 시  
성당사무실 시간: 화요일 ~ 금요일(9:30AM ~ 6:00PM)  
한인 공동체 이메일: [sanclemente.kc@gmail.com](mailto:sanclemente.kc@gmail.com)

미 사 성 가	입당 (54)	봉헌 (217)	성체 (168)	파견 (16)
---------	---------	----------	----------	---------

제1독서 | 창세 18,1-10

화답송 | 시편 15(14),2-3,7.3,4-4,7,8.5(◎ 1,7)

- ◎ 주님, 당신의 천막에 누가 머물리이까?
- 흠 없이 걸어가고, 의로운 일을 하며, 마음속 진실을 말하는 이, 함부로 혀를 놀리지 않는 이라네. ◎
- 친구를 해치지 않으며, 이웃을 모욕하지 않는 이라네. 그는 악인을 업신여기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은 존중한다네. ◎
- 이자를 받으려 돈놀이 않으며, 죄 없는 이를 해치는 뇌물 받지 않는다네. 이 모든 것 행하는 그 사람, 영원토록 흔들림 없으리라. ◎

제2독서 | 콜로 1,24-28

복음환호송 | 루카 8,15 참조

- ◎ 알렐루야.
- 바르고 착한 마음으로 하느님 말씀을 간직하여, 인내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행복하여라! ◎

복음 | 루카 10,38-42

### 성소를 위한 기도

- 좋으신 목자 예수님,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 비오니, 오늘도  
믿음직한 젊은이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의 제자로 삼으시고, 주님의 일꾼으로 삼으소서.
- 온 인류의 구원을 바라시는 주님,  
온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진리의 빛과 사랑의 불을 갈망하고 있사오니
- 많은 젊은이들이 그 갈망에 응답하여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며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소서.
- 주님, 슬기로운 여성들을 많이 부르시어  
주님께 자신을 봉헌하여 복음의 완력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 또한 주님의 몸인 교회에 봉사하며  
도움과 사랑을 애타게 바라는 이웃들에게 헌신하게 하소서.
- ◎ 아멘.

◆ 주일 미사 전례 봉사자 ◆

날짜	미사해설	독서	복사
7/28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8/4	이 그레이스	이 요한	박 다니엘
8/11	유 요한	이 요한	박 다니엘
8/18	이 마틸다	이 요한	박 다니엘

영어독서: 손 데레사

우리의 정성

지난 주일	봉헌금	2 차 봉헌	교무금
	\$145	\$	\$

성당 청소 봉사자 일정

청소시간은 매주 토요일, 오후: 3 시 입니다.

궁금한 사항은 김 마른 총무님께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7/20	박 바오로/ 박 세라피나	8/24	유 요한/ 유 마리아
7/27	손 아놀드/ 손 쟈마	8/31	이 그레이스/ 김 마르타
8/3	이 글라라/ 장 글라라	9/7	홍 마르코/ 홍 아녜스
8/10	박 벨라데타/ 정 루시아	9/14	김 요아킴/ 고 안나
8/17	이 요한/ 이 마틸다	9/21	김유스티노/ 김유스티나

질병으로 고통 받는 분들을 위한 기도

공동체나 이웃에서 병환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시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그리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는 분들이 조속히 병환과 어려움을 이겨내시길 바라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말씀의 이삭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십자가

-김미희 마리스텔라 | '어머니들의 기도(Mothers Prayers)' 한국지부 부회장-

이탈리아 움브리아에 종일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짊어진 십자가가 너무 무거워 더 이상 견딜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그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십자가의 무게를 바꾸어 주십사고 ...

그날 밤 꿈속에 주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그를 창고로 데려가시더니 “들어가서 바꾸어라”라고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갖가지 크기와 모양의 십자가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는 적당해 보이는 십자가 하나를 골라 들었습니다. 거기엔 오랜 친구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는 그냥 놔두었습니다. 마침내 가장 작은 십자가 하나를 찾아낸 그는 주님께 허락을 받고 집어 들었습니다. 그런데 ... 그 십자가에는 자신의 이름이 쓰여 있었습니다.

작가 파울로 코엘료의 페이스북 ‘10초 읽기’를 번역해 봅니다. ‘10초’ 길이라지만 저에게는 지난 30년을 돌아보게하는 글이었습니다. 저에게도 너무 무겁다고 생각했던 십자가가 있었습니다. 27년 함께 살았던 시어머니였습니다.

움브리아 아저씨처럼 저도 주님께 줄랐습니다.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 주시길, 그렇게 십자가의 무게를 바꾸어주시기를...

당연히 제 고해성사의 단골 테마가 ‘시어머니와의 갈등’이 되었습니다. 한 신부님은 “함께 살고 있다는 것 만으로도 이미 화해하고 있는 겁니다”라며 다독여주셨고, 어느 성지의 신부님은 “요즘처럼 시어머니와 함께

공동체 소식

성체조배: 매달 첫째 목요일 오후 6시 30분

성체조배를 통하여 예수님과 더욱 가까워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는 성체조배는 8월 1일 입니다.

한인공동체 임원회의: 매달 첫번째 일요일 오후 7시 30분

임원 분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임원회의는 8월 4일 입니다.

공동체 기도성가 모임: 매주 수요일 오후 8:00

기도성가와 말씀 나눔, 기도로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시간을 많은 형제, 자매님과 함께 하기를 희망 합니다.

장소: 6351 Aker Rd. #7, Bakersfield. CA 93313

성경공부: 주일미사 후 친교실에서 (셋째 주 제외)

매주 미사 후 코린토 후서로 성경 공부를 합니다. 형제 자매님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소공동체 모임: 매주 셋째 주일 미사 후 친교실

이번 모임은 오늘(7월 21일) 미사 후 친교실 입니다.

이번 모임은 ‘순희송 베네딕토 신부님의 가톨릭 신자로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제 2부’로 묵상하시고 나눔을 갖습니다.

새로운 임원진이 결정 되었습니다

평협회장: 유요한

총무: 김마른

재무: 이그레이스

전교: 장클라라

전례: 박바오로

홍보: 박벨라데타

구역장: 김헬레나, 고안나

사는 며느리가 귀한 시대에 여기 와주어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님께 위로를 받고 돌아가시길 빕니다”라고 해주셨습니다. 그런 말씀들에 울컥 눈물을 쏟고 나면 십자가가 잠시 가벼워져 다시 짊어질 용기를 냈습니다. 가까운 주변만 돌아보아도 훨씬 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어리석은 저는 ‘세상에서 제일 가벼운 십자가’인 줄 모르고 끙끙거리며 살았습니다.

어머니는 하루 세 번, 한 번에 한 시간이 넘게 성모님 앞에서 땀을 뻘뻘 흘리시며 큰 소리로 기도하셨습니다. 문밖까지 다 들리는 기도의 90%가 이민 가서 잘 살고 계신 시아주버니를 위한 반복 기도였습니다. 속 좁은 저는 그 기도 분량도 섭섭했습니다. 어찌면 어머니께는 그 아들이 정말 아픈 손가락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야, 남은 10%라도 남편과 아이들을 위한 어머니 요 할머니의 매일 기도가 있었기에 우리 가족이 주님 안에서 평안히 살 수 있었던 ‘고마운 십자가’였음을 깨닫게 됩니다.

가끔은 어머니가 계시던 방 쪽에서 낭랑한 기도 소리가 들려오는 듯합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어머니 죄송했습니다. 참 감사했습니다.” 주님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야 제 기도를 들어 주셨나 봅니다.

복음묵상

그러나 필요한 것은 한가지 뿐이다.

마리아는 좋은 몫을 선택 하였다. (루카 10-42)